

## 나무로 만드는 집

일본을 대표하는 건축물에는 목재로 지어진 것이 많으나 과거 두 차례나 목조건축물의 위기가 있었으며, 현재는 건축기준법 등에 따라 나무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음

### □ 목조 주택이 많은 이유

- 일본에는 1980년대 버블경제 시기에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재건축되거나 화려한 대리석 건물로 바뀌었으나, 여전히 도심 한편에는 허름한 목조건물이 많이 남아있음
- 일본에서 목재가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, 우선 일본 국토의 대부분이 울창한 산으로 덮여있어 양질의 목재가 많이 나오는 자연조건을 들 수 있음
- 그리고 일본의 여름은 상대적으로 길고 상당히 습도가 높는데 이러한 기후적 특성이 목조 건축양식에 많이 반영되었음
- 특히 전통적 가옥은 습한 공기를 순환시키고 통풍이 잘되도록 지붕을 높게 지었고 건축자재로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지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목재를 많이 썼음

### □ 목조 건축문화의 위기

- 일본은 과거 100여 년 사이에 두 차례나 목조로 된 건축문화가 위기에 처하는 사건을 경험했는데, 첫 번째 위기는 1869년의 메

이지이신(明治維新, 명치유신)때임

-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불교와 신도를 분리하는 신불분리령(神仏分離令)을 선포하였는데, 그 목적은 신도를 바로 세움으로써 천황의 신성화를 확고히 하는 데 있었음
- 당시 일본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토속신앙인 신도와 대륙으로부터 전해 온 불교가 혼재되어 있었음
- 메이지(明治) 정부는 이러한 신불습합(神仏習合)을 금지하여, 전국 각지의 신사에 스며들어 있는 불교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도록 명함
- 이 칙령은 점차 폐불기석(廢佛棄釋)운동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수많은 목조 사찰들이 파괴되었으며 이 당시 사찰은 대부분 학교나 관공서 또는 군대의 주둔지로 이용되면서 주위의 성곽들도 무너져 내렸음
- 두 번째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는데, 전쟁으로 불에 타버린 목조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멸절한 목조건물까지 파괴되었음

## □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목조건축물

- 그 후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,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적인 건축양식이 전통적인 목조양식을 대신하기 시작했음
- 무엇보다도 화재와 지진에 대비한 내화(耐火)건축이 전국적으로 장려되면서 목조양식은 제한적으로 허가되었음
- 지금도 목조건물은 건축기준법에 따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, 지정문화재 이외 거대한 목조건물은 세워지지 않고 있음